

## 양승동 사장 제24대 사장 후보 임명제청

국회 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양승동 사장 후보자 약력**  
1989년 KBS 공채 입사  
現 KBS 사장  
前 한국방송협회 회장  
前 KBS 부산총국 편성제작국장  
前 한국PD연합회 회장

제24대 KBS 사장 최종 후보자에 양승동 현 사장이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10월 31일 정기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양승동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해 임명제청 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11월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 양승동 후보자 “믿고 보는 국민의 방송 KBS를 만들겠습니다”

양승동 후보자는 지난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해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 후보자는 이사회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신 시민자문단과 이사회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KBS가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앞서 정책발표회에서도 신뢰도 1위의 저널리즘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믿고 보는 KBS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나아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미디어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젊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장 임명동의제, 탐사보도부 및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설,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 성평등센터 신설 등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KBS의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11월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년 동안 KBS 사장직을 이어나게 된다.

### 177명의 시민자문단, KBS 사장 선임에 직접 참여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KBS 사장 후보 선정에도 시민자문단이 함께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김진수, 양승동, 이정옥 후보는 10월 27일 열린 ‘KBS 사장 후보자 정책발표회’에서 KBS 운영 철학, 경영 능력과 리더십, 미래 방송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각자의 비전을 제시했다. 각계 각층의 시청자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네티즌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177명의 시민자문단은 사장 후보자들의 비전과 철학, 공공성·독립성·신뢰성 강화 방안, 경영 능력 및 리더십, 미래 방송 혁신 방안, 도덕성 등 다섯 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들을 평가함으로써 KBS 사장 선임에 직접 참여했다. 최종 후보 선정에는 시민자문단 평가 40%와 이사회 최종 면접 평가 60%가 반영됐다.



**PBI** 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SEOUL 2018**

# 미디어 빅뱅시대 공영방송의 길을 찾다

2018 세계공영방송총회(PBI)가 KBS 주관으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세계공영방송인의 연례 포럼인 세계공영방송총회는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199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성됐으며, 올해는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세계 공영방송 수장과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양승동 KBS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서울총회가 디지털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공영방송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진실이 소중한 시대, 공영방송 존재감 어느 때보다 커져”



토니 홀 영국 BBC 사장

서울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토니 홀 BBC 사장은 공영방송의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 오히려 공영방송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공영방송을 상업 미디어와 구분되게 하고, 공영방송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신뢰의 등대가 돼야 한다”며 “진실이 소중한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니 홀 사장과 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 “공영방송의 핵심은 신뢰”

가짜 뉴스가 넘치는 시대에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포터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고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현장의 기자와 전문가가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방대한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공영방송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얻기 위해 공영방송, BBC를 찾습니다.

### “BBC는 장사꾼이 아닌 도우미”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영국 내에서 제작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아이 플레이어(iplayer)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도 좋아야 하고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어떻게 플랫폼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방송사와 비교해 공영방송사의 장점은 이용자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 사회통합”

질 마르상 스위스 SRG SSR 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스위스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국민투표 직전 수신료 폐지 찬성 여론이 50%가 넘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를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70%라는 높은 지지로 수신료 폐지에 반대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진 스위스 특성상 공영방송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해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한 스위스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질 마르상 스위스 SRG SSR 사장

## “공영방송 KBS, 남북교류의 주도적 역할 기대”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독일 사례를 들어 분단국가의 통일 전후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동독과 서독은 미디어와 문화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는 데에 협력했다”며 “일례로 1973년 동독은 공식적으로 서독 채널에 방영을 허락했고 1987년 ARD를 비롯한 서독 방송국들은 동독과의 콘텐츠 교류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냈다”고 설명했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확성은 대중 신뢰의 핵심”

“많은 상업 방송들이 빨리 보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빨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가 정확인지, 검증되었는지, 모든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중요합니다. 독립성과 정확성은 대중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이며 공영방송은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샬리 앤 윌슨 공영방송연대(PMA) 회장

# “뉴미디어 세상에서 미래를 고민하다”

올해 서울총회는 모두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통합을 위한 분쟁지역에서의 공영방송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세션이 마련되기도 했다. 특별세션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인큐베이터’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스’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과 맞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공영방송의 미래를 모색했다.

## TV의 미래와 공영방송의 역할

세 번째 세션은 ‘TV의 미래, 시청자를 위한 UHD’를 주제로 에릭 울프 미국 PBS 부사장과 야키히코 치고노 NHK 기술본부장, LG 김진필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 첨단 방송기술의 미래와 공영방송의 역할을 고민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성공리에 마친 KBS의 경험에 대한 최선욱 KBS 전략기획국장의 주제발표가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

네 번째 세션 ‘연결 플랫폼 시대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서는 질 마르상 스위스 SRG SSR 사장이 공영방송의 존립을 원했던 스위스 국민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 ‘젊은 시청자’는 누구인가

‘젊은 시청자 리서치 1.0’이란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임병걸 KBS 미래사업본부장이 설문 분석을 통해 미래의 주시청층인 ‘젊은 시청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겨냥한 전략적인 접근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 플랫폼 전환시대, 우리는?

첫 번째 세션은 ‘플랫폼 전환과 미디어 빅뱅: 플랫폼 시대,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우에다 료이치 NHK 회장이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 미디어로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윤상 삼성전자 부사장과 서황욱 구글코리아 전무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진단하며 패널토론의 장을 열었다. 토론 진행자로는 장 폴 필리포 유럽방송연맹회장이 나섰다.

## 거대 자본에 맞서는 공영방송의 미래

두 번째 세션은 ‘진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폴 톰슨 뉴질랜드 RNZ 사장과 차오 원지에 타이완 PTS 사장, 곤살로 헤이스 포르투갈 RTP 사장과 미켈레 잠타 이탈리아 RAI 국제공동제작 국장이 ‘넷플릭

## I·N·T·E·R·V·I·E·W

### “국제사회에 공영방송 KBS 역량 보여줘”



김영삼 국제협력부장 (PBI 총괄)

“위기는 기회...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BBC 토니 홀 사장의 말처럼 ‘위기는 기회’지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그냥 망할 뿐이다. 우리

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단지 이 시련을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공영방송 중에 위기탈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이번 PBI를 통해 우리는 그런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 “국제 방송계에서 KBS 위상 확인”

국제 방송계에서 KBS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사실 국제적으로 KBS의 위상은 우리 생각 이상이다. KBS에 대한 높은 기대 또는 기준을 우리가 확인시켜줬다고 본다.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부대행사인 음악회와 만찬, DMZ 시찰 등은 잠재된 KBS의 저력의 결과다. 예능국이 주관한 평화음악회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는 찬사를 이탈리아 RAI 대표로부터 들었다. KBS의 대형 쇼 연출에 쌓인 노하우가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다.

## PBI 서울총회 순간들

### 환영리셉션



KBS 쿂� 스튜디오

**공영방송의 철학과 역할을 요리로 선보이다!**

첫 공식 행사로 PBI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이 KBS 쿂�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누들로드>, <요리인류>를 제작한 KBS 스타 PD 이육정 씨가 메인 셰프로 나서 한우를 이용한 햄버거와 김을 이용한 식전 요리 등 우리 땅의 식재료들로 만찬을 대접하며 ‘공영방송의 역할 또한 정크 푸드가 아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상기시켰다.

### 평화음악회



KBS홀

**한류의 뿌리, 대한민국 문화에 흠뻑 빠지다!**

환영리셉션 뒤에 이어진 평화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우리 음악과 스타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공영방송의 기본 역할 가운데 하나는 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 소리꾼 장사익과 국악인 송소희, K팝 가수 휘성과 레드 벨벳 등이 한데 어우러진 90분간의 무대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DMZ 문화시찰



DMZ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장을 직접 보다!**

총회를 마치고 진행된 DMZ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캠프 그리브스 등을 돌아보며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분쟁지역에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특별세션에 쏟아졌던 뜨거운 관심만큼 DMZ 문화시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참가자들은 ‘Interesting!’을 연발하며 ‘평화’라는 인류 공통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느꼈다고 평했다.





#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6 '서초동 요정' 강병수

**정형화되고 딱딱한 재미없는 기자들의 모습은 잊어라!**  
TV 방송을 뚫고 나온 유튜브 속 기자들! 그들의 거침없는 만담이 펼쳐진다.

KBS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공감하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유튜브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기자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KBS 사보가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았다.

##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매주 월요일 KBS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팟빵, iTunes,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업로드



'KBS의 자극제 방송 제작자' 오귀나

'목소리 미녀' 옥유정

'법조팀의 강한 허리' 홍성희

'프로대댓글러' 김기화

### Q 시청자들의 댓글은 주로 어디서 찾는지?

**김기화**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보면 댓글 많은 순으로 뉴스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간 KBS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가져와 방송에서 소개한다. 주로 단독 보도가 댓글이 많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후배들에게 단독 보도 많이 하라고 쫓고 있다.(웃음)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기화** 다스 취재나 김영란법 관련 방송이 떠오른다. 먼저 김영란법과 관련해 방송한 6화 '전직 홍보팀 전격 인터뷰! 기자들은 왜 밥을 안 살까?' 편이 기억에 남는다. 기자한테 밥을 많이 사던 홍보팀 직원의 속마음은 어떤지 익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었다. 생각한 것보다 기자들이 각종 갑질(새벽 한 시에 술 계산을 하라고 부른 일 등)을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방송 내용은 업계 홍보팀 단독방에서 시원한 에피소드로 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옥유정** 나도 이 에피소드가 좋았다. 사람들이 기자에게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기자들이 쓸데없는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비싼 밥까지 얻어먹는 것이 있다. 기자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뜻깊었다.

**강병수** 다스 취재 같은 경우, 올 한해 핫했던 것이었다. 홍성희 선배가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라는 회사에 대한 취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증거물의 마지막 부분이 없어 답답하다는 멘트를 했다. 그러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피드백이 너무 기쁘고 시·청취자들이 취재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 Q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귀나** 2016년 나는 <황정민의 FM대행진> 조연출이었고, 김기화 선배는 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는 코너의 출연 기자였다. 그곳에서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상파 정규방송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지난 파업을 마치고 우리들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시작됐다.

**옥유정**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탄탄하게 준비되어 왔다. 오랜 생각과 고민들이 파업 기간에 구체화됐으며 한 달 동안 시 녹음을 한 뒤에야 8월 27일 첫 방송이 업로드될 수 있었다. 말하는 직업을 가진 기자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을 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건 드물다. 기획안을 보는 순간 너무 하고 싶었고, 같이 하게 돼 기쁘다.

### Q 뉴스 취재, 리포트를 할 때와 유튜브 방송을 할 때의 차이가 있다면?

**옥유정** 댓글들이 대부분 감정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욕설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욕설, 거친 표현)을 읽을 때... '기자가 이래도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매체의 특성을 따른다면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기화** 보도국장님이 팟캐스트를 할 때 KBS 기자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매체만의 특성에 맞춰 방송을 하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죄송할 것 같다.

### Q 방송 제작과 업로드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김기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녹음을 한다. 그리고 금요일엔 오디오 편집, 토요일엔 오디오 편집과 더불어 영상 편집, 일요일엔 자막 작업 그리고 월요일에 업로드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면 다음 아이템을 기획하고 방송 홍보도 한다.

**오귀나** 업로드되는 방송 영상은 KBS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팟빵, iTunes,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각각의 플랫폼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방송을 찾을 수 있다. 그밖에 인스타용은 1분짜리, 유튜브용으로는 7~10분짜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SNS 홍보용으로 반응이 좋다.

### Q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나 기획한 것이 있다면?

**김기화** 다음 녹음 때 '언시생(언론 시험 준비생)이 바라본 KBS'를 주제로 방송할 예정이다. 아랑(언론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 카페)에 있는 빠르빠리한 언시생들의 시선에서 지금의 KBS 뉴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명을 선발해 초청했다. 선발은 KBS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 별 이유 없이 KBS를 두들겨 패고 싶은 분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섭외했다. 진솔한 '날 것'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된다.

### Q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 대한 나만의 가치, 의미를 말해보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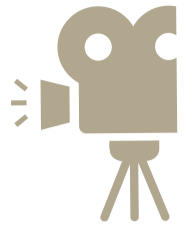
**오귀나**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 같다. 당연히 기존 형태의 방송을 잘 만들어야겠지만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에 자극제가 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

**강병수** 반향이 큰 기사는 공감하는 기사인 것 같다.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그래 맞아' 했던 이야기들. 유튜브 매체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기 편한 매체다. TV에 나오는 기사는 나와 먼 사람 같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기사는 당신 옆에 있는 친구 같다. 방송을 통해 우리들이 시·청취자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홍성희** 댓글을 보며 뉴스만큼이나 뉴스 생산 과정을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걸 느낀다. 기자들은 각자가 쓴 기사만큼이나 취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 즐겁다. 요즘은 기자 개인이 시청자를 만나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시대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은 기회다.

♪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





# 당신의 추억 KBS가 꺼내드립니다

## 방대한 영상 자료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은 TV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튜브의 영향력은 놀랍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국내 유튜브 이용률은 3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 4월 기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역시 1040세대에 걸쳐 모두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의 주 시청자들인 Z세대(14~25세)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유튜브 사용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서 KBS는 2016년 디지털서비스국을 설립해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여기서 KBS가 주목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시작한 방대한 영상 자료이다. 2011년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영상파일 자료만 56만 시간. 이들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빛을 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요즘 반응 핫하네?” KBS 코미디 전문 채널 ‘크큭티비’

KBS 아카이브 속 <유머일번지>, <웃음충전소>, <개그콘서트> 등 코미디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한 ‘크큭티비’ 채널은 10월 8일 시작했다. 특히 업로드 된 영상 중 <개그콘서트> 430회(2008년 2월 3일) ‘달인’ 코너 영상이 36만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이게 진짜 레전드다’, ‘육성으로(웃음이) 터졌다’, ‘축구에 넘어지는 편도 올려주세요’ 등 뜨거운 반응과 함께 다양한 옛 추억의 영상들을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코미디계 대부로 통하는 김형곤, 임하룡, 심형래 등을 비롯해 유재석, 박나래, 김준호, 유세윤 등 인기 스타들의 풋풋한 데뷔 시절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아련한 추억을 전달한다. ‘크큭티비’는 유튜브 공식 채널뿐 아니라 KBS 홈페이지, my K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 “그 시절 우리의 노래”... ‘Again 가요톱10’ 유튜브 채널

1980~90년대 최고의 가요 프로그램 <가요톱10>은 <뮤직뱅크>의 시초가 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가득 채웠던 레전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가요 전문 유튜브 채널 ‘Again 가요톱10’에서는 1,000여 개 이상의 음악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원하는 가수의 노래만 골라 볼 수도 있고 연도별 최고 인기가요를 선택해 볼 수도 있다. 앞으로는 <가요톱10> 영상뿐만 아니라 <젊음의 행진>, <가요대상>, <토요대행진> 등 90년대 이전 음악 프로그램들도 서비스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Again 가요톱10’은 유튜브 외 네이버TV, 카카오톡TV 등에서도 채널을 운영 중이며, KBS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 창작자에게 용기를 주는 ‘KBS 독립영화상’



**MAGGIE**  
BIFF 2018

“<메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14번째 영화로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을 밝게 풀어낸 작품이다.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메기> 이옥섭 감독 인터뷰

### INTERVIEW

**KBS는 독립제작사 및 독립제작자와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던 독립 영화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 처음 ‘KBS 독립영화상’을 신설한 것. 첫 수상자인 <메기>의 이옥섭 감독을 KBS 사보가 만났다.**

#### ‘KBS 독립영화상’의 첫 수상자가 됐다. 소감이 어떤가?

영광스러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KBS 독립영화상’이 나에게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큰 용기를 준 것 같아 힘이 난다.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장점을 더 잘 봐주신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다. ‘KBS 독립영화상’이 앞으로 독립영화를 만드는 많은 창작자들에게 다음 작품을 만드는 용기를 주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해 주는 <KBS 독립영화관>이 영화학도와 독립영화계에 어떤 의미인가?

2013년에 신년 단편영화 특집으로 연출작 <엄마를 찾아주세요>(2010)가 방영됐던 적이 있다. 지금도 영화학도들에게 <KBS 독립영화관>에 방영되는 것은 큰 기쁨일 것이다. 단편영화가 완성된 후 1년 동안 영화제에 소개된 이후에는 극장에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립영화제는 찾아와야 볼 수 있는 것인데 <KBS 독립영화관>은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방영 시간이 조금만 앞당겨진다면, 보석 같은 작품들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 거 같다.

#### 독립영화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쉬웠다기보다 송구스러웠다. 최근에 <세마리>라는 단편영화 로케이션 헌팅을 갔을 때 독립영화라고 소개하니, <KBS 독립영화관>에서 <여배우는 오늘도>를 보셨다면 먼저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이전에 비해 설명하기 쉬워졌다고 느껴져 기뻐다.

####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영화를 꾸준히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 같다. 그 시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인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작은 시도와 실패,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다.

“이 프로그램 또 보고 싶어요!”

#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화제의 프로그램들

지상파부터 전문 채널까지, 하루에도 수 백 편의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방송 시장에서 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눈에 띄기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만약 한두 시간짜리 단발성 프로그램이라면? 누군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때문에 더 주목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새로운 시각, 공감과 재미로 무장한 KBS의 여러 특집 프로그램들이 최근 방송 후 시청자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정규 편성을 껴챘다.

## ‘수신료 가치 빛낸 프로그램’ 평가받은 <거리의 만찬>

<거리의 만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통 시사 토크쇼와 조금 달랐다. 방송인, 정치학 박사, 정치인으로 구성된 3인의 MC는 모두 여성 진행자였으며, 스튜디오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사회 문제를 논하던 익숙한 형식에서 벗어나 운전대를 잡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이 향한 곳은 13년째 곳곳이 부당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KTX 승무원들의 농성 현장, 남북 평화 무드가 무르익던 시기 강원도 최북단 마을 명파리였다. <거리의 만찬>은 각종 통계자료나 전문가 인터뷰 대신 당사자인 그들의 공간에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혹여 못다 한 말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다. 마치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로드 무비 같기도 하고 새로운 형식의 예능 같기도 했던 2부작의 짧은 시사 토크쇼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알려줬다”, “수신료의 가치를 빛낸 프로그램이다” 라는 평을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평과 함께 매주 금요일 밤 10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 <거리의 만찬>은 2부작에서 함께했던 방송인 박미선, 정치학 박사 김지윤이 출연하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소영이 새롭게 합류한다. 기존과 다른 관점, 다른 시선, 다른 느낌의 시사 토크쇼 <거리의 만찬>이 정규 편성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더욱 풍요로운 이야기를 풀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 11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1TV

## 다큐에서 영화, 이번엔 드라마로 만나는 <뽕뽕걸즈>



조선소 불황으로 찬바람이 불어 닥친 거제시, 크레인이 즐비한 해안가 너머에는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다. 수업 시간 내내 졸다가도 ‘뽕스 뽕스-츠’를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나는 여섯 소녀들의 댄스 스포츠 도전기, 지난해 4월 방영된 <KBS 스페셜-뽕뽕걸즈>다. 위기에 빠진 거제의 현주소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한없이 유쾌한 소녀들의 성장통을 자연스럽게 풀어낸 한 시간짜리 방송의 여운은 꽤 길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영화 제의가 들어왔고 지난해 9월에는 드디어 상영관에 걸렸다. 이어 ‘2017 CGV 올해의 독립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도 수상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설 새 없이 달려온 <뽕뽕걸즈>가 이번에는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영화감독이 꿈인 자기중심적 사춘기 소녀 김시는 역은 배우 박세완이, 거친(?) 인생을 살아오며 소년원에 갈 뻔했지만 댄스 스포츠 선생님의 도움으로 반강제 동아리에 입성한 박혜진 역은 이주영이 맡았고, 본인이 예쁘다고 믿는 양나영 역에는 주해은, 한때 유도 유망주 이예지 역에는 신도현이 캐스팅됐다. 이유미와 김수현은 9등급이 모인 학교에서 9등급을 맞는 김도연과 김영지 역을 맡았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뽕뽕반’에 모인 6인방과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선생님의 이야기, 드라마 <뽕뽕걸즈>가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 12월 중 방송 예정

## “<옥탑방의 문제아들> 정규편성 해주세요”



추석 연휴는 방송사의 파일럿 프로그램 전쟁터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야심차게 선보이지만 그 중 대부분은 기억에서 잊힌다. 올 추석 연휴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눈에 띄는 청원이 있었다. 추석 파일럿으로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정규 편성해달라는 글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정규 편성을 바라는 글들이 이어졌고 방송 당시 출제된 문제들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응답해 KBS는 11월 7일부터 수요일 밤 11시대에 <옥탑방의 문제아들> 정규 편성을 확정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김용만, 송은이, 김숙, 정형돈, 민경훈 5인방이 옥탑방에서 탈출하기 위해 10개의 상식 문제를 푸는 지식 토크쇼다. 이미 파일럿 방송 당시 문제를 풀기 위해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로 제작진에게 힌트를 얻어내던 ‘협상요정’ 김숙과 기상천외한 오답 퍼레이드로 웃음을 자아냈던 민경훈, 예상치 못한 허당미를 뽐냈던 송은이와 정형돈, 왕년의 토크 실력을 마음껏 뽐냈던 김용만의 독특한 하면서도 의외의 풀조합이 큰 사랑을 받았다. 저녁에 모여 동이 틀 무렵이나 탈출했던 옥탑방 멤버들, 정규 방송에서는 과연 탈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지, 어떤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이들 앞에 나타날지 웃음 터지는 옥탑방 탈출기가 다시 시작된다.

▶ 11월 7일 수요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 2TV

# 제29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 열려



장애인, 소외계층, 청소년 등 성별·세대별·전문 분야별 다양성이 강화된 제29기 시청자위원회의 첫 정례회의가 열렸다. 제29기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한 달 동안 방송됐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태풍 '콩레이' 북상 재난방송과 관련해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좀 더 구체적인 자막을 넣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9월 2부작으로 방송됐던 프로그램 <토론회 시민의회>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사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종 결과 도출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제29기 KBS 시청자위원회는 각계각층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월 한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는 KBS 공식 페이스북, my K 등 인터넷과 SNS로 생중계된다.

## 순천방송국, 여순사건 70년 특별음악회 '해원' 개최

순천방송국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70년을 맞아 특별음악회 '해원'을 지난 10월 17일 여수 엑스포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지역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음악회 '해원'은 KBS 국악관현악단과 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등이 참여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담은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가수 안치환은 여순사건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노래 '부용산'을 열창하였고 국악인 박애리는 여순사건 당시 오빠를 대신해 처형장으로 끌려간 여동생이 불렀던 '산동애'를 재해석했다. 또한 시인 박두규는 여순사건의 해원(원통한 마음을 풀)을 희망하는 시 '1948년 10월 여수'를 낭독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랠었다. 이외에 가수 김원중, 국악인 김희영, 김용우, 제정화, 성악가 방대진 등이 무대에 올라 '여수 블루스'와 '봉선화', '봄이면 사과 꽃이'와 '여순 동백' 등을 열창했다.



## 해양 재난방송도 KBS, 국립해양조사원과 업무협약 체결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분야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S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내년에 발사 예정인 국가해양위성 천리안-2B의 실시간 위성영상을 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수신해 일기예보나 재난방송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어서 해양과학기술에 설치된 방송용 카메라와 국가 해양관측망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BS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한반도 해양의 실황과 예측 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해양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달의 PD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상	부문	작품명	수상자
이달의 PD상	TV 시사다큐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김명숙, 길다영 PD, 권혁균 감독, 신지현 작가
	라디오 음악오락	클래식FM 〈여름음악학교〉	김영동, 김경정 PD, 정주은 작가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 부문	〈재벌묘역〉 연속보도	김덕훈, 박혜진, 이세연, 김민지, 양예빈, 김민준, 김한빈, 이제우 기자
	지역 뉴스 부문	광주총국 〈미술품 기증의 두 얼굴...비공개 협약 최초 공개〉	지종익, 이성각, 김강용, 이성현, 신한비 기자
	지역 기획보도 부문	부산총국 〈센텀 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노준철, 이이슬 기자

## 본사 소방시설 점검 실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을 맞아 안전관리 방재팀은 지난 10월 1일부터 소방시설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사 내 소화기 1,047개 등 소방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화된 소방 설비를 교체해 만일에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위탁해야 할 소방시설 법정점검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방재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해 매년 2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무인 택배함 6개월간 시범설치



본사 근무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지난 10월 10일 본관 로비 티타임 뒤쪽, 신관 로비 주출입구 신한은행 옆, 별관 로비 좌측 승강기 앞 세 곳에 무인 택배함 153개를 시범 설치했다. 개인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위치와 인증번호를 입력 후 택배를 찾아가면 된다.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택배물을 찾아갈 수 있으며 미 수령 시 연체료가 발생해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6개월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사내 호응 등 이용률 여부에 따라 추가 운영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비 없이 지켜줄게요...팀장님!



악덕상사 갱생 프로젝트

# 죽어도 좋아

KBS 2TV 수목드라마

### 상상이 현실로?! 본격 직장인 대리 만족 드라마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던 상상이 현실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대리만족시켜 줄 새로운 오피스 드라마가 나타난다. 11월 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던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회사 속 모습을 보는 듯한 공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악명 높은 악덕 팀장 백진상(강지환 분)과 그를 개과천선 시키려는 대리 이루다(백진희 분)의 대 환장 오피스 격전기를 그린 드라마 <죽어도 좋아>. 백진상 팀장에게 대항하는 이루다 대리의 사이다 언행을 통해 상상만 했던 직장인들의 속 시원한 복수 스토리가 기대된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죽이고 싶은 정도로' 피하고 싶은 '진상 상사'의 '갱생'과 전쟁터 같이 스펙터클한 회사에서의 '생존기'가 시청 포인트! 보기만 해도 가슴 땀 뚫리는 통쾌함을 선사하고 상처 받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색다르게 어루만져줄 <죽어도 좋아>만의 독특한 힐링 요소가 시청자들의 대리만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 웹툰과 드라마 속 톡톡 튀는 매력적인 캐릭터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2015년 오늘의 우리 만화'를 수상하며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동명의 웹툰 '죽어도 좋아'를 원작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작 웹툰에 현실 속 직장인들의 삶을 더욱 리얼하게 가미했으며, 톡톡 튀는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자랑하는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원작과 비교하는 재미도 더할 예정이다. 워킹맘 대리 최민주(류현경 분), 현실 과장 박유덕(김민재 분), 금수저 대리 강준호(공명 분), 구조조정 전문가 유시백(박솔미 분), 야망 가득한 사장 강인한(인교진 분), 강인한 사장의 옆을 지키는 상무 나철수(이병준 분) 등 연기 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현실적인 오피스드라마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웹툰 속 그림과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말투 등 웹툰의 명장면을 그대로 살렸으며, 원작을 초월하여 재현한 캐릭터는 물론 드라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까지 두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 독특한 재미를 선사한다. <직장의 신>, <김과장>, <저글러스>에 이어 KBS 오피스 드라마의 계보를 이을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죽어도 좋아>는 다채로운 포인트로 풍성한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 11월 7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 2TV